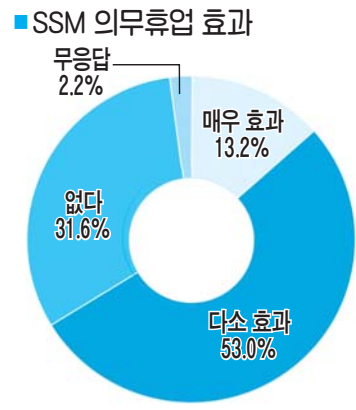


상인 66%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만족”

광주 골목상권 등 500곳 설문...288곳 매출 증가
전통시장 절반 이상 신장...변화 없는 곳 119개소

대형 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동시 의무휴업에 대해 광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6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체인점 슈퍼의 경우 대형마트·SSM 동시 휴무로 인해 상당한 매출 신장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통시장 5개소 200개 업소와 중소형 슈퍼마켓 118개 업소, 골목상권 182개 업소 등 총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2%인 331개 업소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시장 상인회와 광주YWCA 주부 물가모니터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협조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영업제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응답한 업소는 66개소(13.2%), '다소 효과가 있다'는 업소는 266개소(53.2%)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8%인 288개 업소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매출액 10% 이하 증가가 208개 업소(42%), 11~



개소(89%)로 집계됐다. 특히 규모가 큰 체인점 슈퍼의 경우 조사대상 11개 체인점 모두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골목상권의 경우 조사대상 182개 업체 중 73개소(40%)만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고 답변한 반면 '그렇지 않다' 77개소, '무응답' 32개소 등 109개소(59.8%)가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효과를 공식적으로 분석한 첫 자료지만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정확한 실태조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3, 4개월 뒤 제도가 정착되면 다시 심도 있게 조사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 증가가 115개 업소(23%)인 반면, 119개 업소(24%)는 '매출 증가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5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전체 280개 업소 중 126개소(63%)로 나타났으며, 슈퍼마켓은 조사대상 118개 업소 중 105

곡창지대 나주에 비료공장을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6>

나주호남비료 유치 도민운동 ①

▲나주에 비료공장을 1950년대 중반 전남도민들의 나주 호남비료유치 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가난에 찌든 지역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자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건설해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비료의 자급을 시급한 대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오던 정부로서도 한국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1953년 들어서면서부터 비료 공장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기 시작했다.

▲유치운동의 좌절

공장 하나로 농·공기반환보...일석이조 기대

ICA 지원자금 변경...공장입지 갑자기 총주로

암흑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자각 운동이었다면 나주 호남비료유치 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가난에 찌든 지역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자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이 주력산업이던 당시의 우리나라는 한국 최대의 농도요 곡창인 호남의 양곡 수확량이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그 양곡수확량을 좌우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비료 수급이었다. 더구나 수요량의 전망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로서는 비료의 수입 대체와 자급이야말로 국정의 지상과제였다.

7월에는 UNKRA(유엔한국재건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미국 용역회사의 화학기술진이 내한, 적지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작업을 벌인 끝에 나주를 제1 후보지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전남도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당시 농가의 비료 품귀현상은 극에 달했으며 부르는게 값이었던 막대한 구입력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토지자본이 산업화에 눈을 뜨는 각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 먼저 비료 산업에 눈길을 돌린 사람이 당시 광주에서 호남기계 제작소와 호남산소공장을 경영하던 이문환(李文煥) 사장이다. 그는 나주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요, 비료 수요의 중심지임을 들어 이곳에 비료공장을

철석같이 믿었던 ICA 지원 자금이 하루아침에 총주로 변경되고 만 것이다. 당시 나주 호남비료의 유치운동은 전남이 비료 소비지역이라는 수급상의 유리한 입지조건 이외에도 두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지역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는 나주 호남비료의 건설이 농업기반과 공업기반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인 전남이 현지에서 직접 비료를 대량으로 공급받는다든가 생산효율을 배가할 수 있는 농업구조와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공업기반의 측면에서 보면 토착산업체가 전무한 전남으로서 비료 공장이라는 고도의 장치산업체를 유치하므로서 일차산업 일련도의 산업구조를 농공병진도의 산업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1951년의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놓인 농도의 토지 자원을 산업자본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당시 지주들은 농토를 헐값으로 국가에 팔고 연부상환 조건의지가 증권을 받았다. 이 지가증권을 당시의 물가고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자본력을 상실하고 있었지만 이를 나주 호남비료 건설의 출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산업화를 위한 막대한 구입력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토지자본이 산업화에 눈을 뜨는 각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CA 지원자금에 의한 비료공장 건설의 꿈은 공장 입지가 나주에서 총주로 바뀌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위중 (인문인)

'킹덤' 세계주류품평회 석권

하이트진로 위스키

위스키 '킹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주류품평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위스키 계열사 하이스코트 '킹덤'은 2012년 벨기에 몽드셀렉션에서 12,17, 21, 30년산 전 제품 모두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450개의 위스키 제품들이 출품됐으며 최고의 위스키를 선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주류 전문가들이 까다로운 기준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각종 테크니컬한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가장 뛰어난 위스키를 선정했다.



킹덤은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12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SWSC)에서도 국내 최초 2년 연속 전 제품 모두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12년산과 21년 산은 더블 금메달, 17년산과 30년산은 금메달을 각각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T 운림점 개장 KT광주마케팅단(단장 김삼균·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최근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 'KT광주지사 운림점'을 개장했다. 운림점은 동구 주민 및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KT 전화요금 수납, 민원 상담 등을 한다. (KT광주마케팅단 제공)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밥알이 윤기나고 찰진 나주쌀

자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나주목사내야

남만여행의 새로운 벗, 황포돛배

그 맛에 애간장이 녹는 영산포 흥어

으뜸 보양식 구진포장어

천연염색 본고장 천연염색문화관

말갈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나주곰탕

살아 숨쉬는 고구려역사, 나주영성테마파크

행복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 나주

숨겨진 맛과 멋의 이야기속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
오랜시간 축적된 역사의 숨결!
맛갈스런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 나주!